'재범' 강력범죄 출소자 관리 역부족… "전자발찌 채워야"

두차례 방화로 실형 선고… 출소 반년도 안돼 범행

"전자발찌 도입" "수감시설 맞춤형 치료·형량강화"

광주 정보수집 대상 강력범죄 출소자는 총 109명

광주에서 두차례 방화로 실형 선고를 받아 관리대상으로 등록된 40대가 또다시 방화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재범 우려가 큰 강력범죄 출소자에 대한 범죄 억제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6일 광주 남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주차 차량에 잇따라 불을 지른 A(40대)씨가 일반자동차방화 혐의로 구속됐다.

A씨는 20일 오후 10시55분부터 이튿날 0시45분 사이 남구 백운동과 양림동 주차장과 거리에 주차된 차량 2대에 인화물질을 이용해 불을 낸 뒤 휴대전화 전원을 끄고 잠적하려다 경찰에 붙잡혔다.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이전에도 두차례 방화를 저질러 수감 생활을 했다. 이번 범행은 같은 전과로 교도소 생활을 한 지 반년도 지나지 않아 또 발생한 것이다. A씨는 '주요 강력범죄 출소자 정보수집 규칙'에 따라 경찰 관리 대상으로 등록됐다.

관련 규정에 따라 경찰은 A씨처럼 살인·방화·강도 마약 등 재범 우려가 큰 강력범죄 출소자는 2년 또는 3년간 간접적으로 정보와 동향을 수집, 세달에 한차례 이상 경찰서에 보고해야 한다.

경찰은 보호관찰소와 협업, 출소 이후 방화 우려가 큰 A씨의 범죄 예방을 위해 전화를 하거나 안부를 물으며 수시로 관리하며 동향을 파악해왔지만 새벽 시간 우발적인 범행을 막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경찰은 강력 범죄 출소자 관리가 간접적인 정보 수집에만 그치고 있어 강력한 통제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찰 관계자는 "방화로 실형 선고가 5년 안팎에 그치는 데다 출소해도 또 범행할 가능성이 높아 걱정이 크다"고 말했다.

지난 21일 오전 광주 남구 양림동에서 방화로 인한 차량 화재가 발생해 소방 당국이 감식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광주 남부소방 제공

또 "재범 우려가 높은 강력 범죄자들의 경우 전자발찌 등을 부착해 24시간 범죄를 억제하고 범행시 곧바로 추적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출소자의 재복역률은 매년 감소하는 추세이긴 하지만 여전히 두 자릿수를 기록하고 있다. 2023년 기준 출소자 2만7824명 중 3년 이내 재복역률은 1년 이내 4.8%, 2년 이내 15.6%, 3년 이내 22.5%다.

공공의 안녕과 인명·재산피해 최소화를 위해 재범 우려가 있는 강력 범죄자에 대한 보다 강력한 보호·관리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윤호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명예교수는 "재범의 배경이 다양한 만큼 출소자 관리를 경찰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분야와 연계가 필요하다"며 "수감시설 내 재범 가능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화·치료 병행, 복지·상담 연계, 자치 경찰의 역할 부여 등 여러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윤성 순천향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범죄자의 인권도 중요하지만 공공의 안녕을 위해 강력범 강력 대처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와 합의가 필요하다"며 "재범에 대한 형량을 강화할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광주 지역 경찰 정보수집 대상인 주요 강력범죄(절도·마약사범·살인·방화·조직폭력·강도·약취 유인)출소자는 109명이다. 북부서 39명, 광산서 23명, 서부서 20명, 동부서 14명, 남부서 13명이다.

/오권철 기자

망상 시달려 동료 살해한 지사장, 2심 징역 14년

1심 징역 15년보다 감형… "유족 합의 등 고려"

자신을 음해한다는 망상에 시달리다 출근길에 나선 동료를 흉기로 잔혹 살해한 50대 지사장이 항소심에서는 징역 14년으로 원심보다 감형받았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의영 부장판사)는 26일 201호 법정에서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서 징역 15년을 받은 A(51)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14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수법과 경위 등이 잔혹해 죄질이 나쁘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극심한 스트레스 등 정신적 요인이 어느 정도 범행에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합의한 유족이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다시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9월9일 오전 7시30분께 광주 서구의 한 아파트 단지 복도에서 출근길에 나선 직장 동료 B씨를 붙잡아 넘어뜨린 뒤 흉기로 마구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회사 지사장으로서 실적 스트레스를 받던 A씨는 평소 친했던 B씨가 자신이 공금을 횡령한 것처럼 꾸미고 있다고 오해해 극심한 배신감을 느껴 계획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하루 전 구입한 과도 등을 대나무 끝에 매단 창 형태의 무기를 만들고 치밀한 살해 계획까지 세웠다. 범행 1시간 전에는 B씨가 사는 아파트 가구 앞 복도 주변을 미리 살폈고 편한 복장으로 갈아입은 뒤 B씨의 자택 현관문 앞에서 기다렸다.

A씨는 범행 과정에 미리 챙겨간 다른 흉기까지 꺼내 휘두르며 B씨를 잔혹하게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직후에는 흉기를 아파트 설비 단자함에 숨겨 놓은 뒤 차량으로 도주, 범행 은폐 시도도 했다.

앞선 1심은 "범행 동기와 경위 모두 납득하기 어렵다. 재범 위험성 평가 결과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점, 범행 방법 등에 비춰 재범 우려가 높아 보인다. 극심한 업무 스트레스 등 A씨의 정신적 문제가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유족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한 바 있다.

/전민규 기자

전남도, 온열질환 322명 "무더운 시간 야외작업 자제"

낮 시간대 농업종사자와 노인 등 취약층 각별한 주의 당부

전라남도는 올 들어 25일 현재까지 온열질환자는 322명이고, 이중 2명이 숨져 한낮 무더운 시간대 야외작업 자제 등 생활수칙 준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는 5월부터 운영 중인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를 분석한 결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40명(사망자 3명)보다 18명이 줄어든 규모다.

이는 전국 온열질환자(질병관리청 자료)가 총 3천815명으로, 지난해보다 1.26배 늘어난 것과 대조된다.

전국 발생 환자는 하루 최고기온이 31.1~33.2℃ 구간에서는 1℃ 상승 시 환자가 평균 22명 증가했으며, 33.3℃ 이상에서는 1℃ 오를 때마다 51명씩 늘어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고온에 따른 건강위해 위험이 기온에 따라 급격히 증가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셈이다.

전남도는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지난해보다 5일 앞당긴 5월 15일부터 9월 30일까지 응급실 감시체계를 운영 중이다. 보건소와 응급의료기관을 통해 발생 현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있다.

전남지역 발생자는 연령별로는 65세 이상 고령층의 발생 비중이 31.7%(102명)

로 높고, 시간대는 낮 12시부터 오후 5시 사이, 장소는 실외 작업장 129명(40.1%)·농경지 66명(20.5%) 등 햇볕에 직접 노출되는 곳에서 환자가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농업 종사자와 노인층이 폭염에 특히 취약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됐다.

정광선 전남도 보건복지국장은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가장 무더운 시간대에는 외출과 야외 작업을 자제하고, 물을 자주 마시며, 시원한 그늘에서 휴식하는 생활 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승원 기자

전남교육청, 모든 교육시설에 인터넷 무선망 구축

기존 무선망 속도 저하 문제 발생… 2026년 6월까지 모든 시설에 설치

전남도교육청은 안정적인 디지털 교육 지원을 위해 학교 무선망 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학교별로 여러 제조사의 무선AP(Access Point)가 설치돼 망 간 채널 간섭과 속도 저하가 발생하는 만큼 '1교 1제조사' 무선망을 구축해 이를 해소하는 게 핵심이다.

전남교육청은 9월부터 2026년 6월까지 유·초·중·고등학교 및 소속기관을 대상으로 무선AP를 재배치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총 832개 학교에 무선AP 2만800대를 설치할 예정이다. 또 기존 교과교실, 특수교실에 한정되었던 무선망을 관리실, 2030교실을 포함한 모든 교실로 확대해 학습 공간 외에서도 원활한 무선 환경을 제공한다.

이번 무선망 재배치 사업에 2025년 하반기 2억5500만원, 2026년 상반기 2억8000만원 등 총 5억35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김대중 전남도교육감은 "내실있는 디지털 교육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네트워크 환경을 갖추는 중요하다"며 "학교 무선망 환경을 최적화해 안정적인 디지털 교육을 지원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2030 미래교육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염선호 기자

전남도, 조류인플루엔자 대비 민관 동물방역 역량 강화

농가·관계 공무원 등 대상 26일부터 6회 실무형 방역교육

전라남도는 조류인플루엔자(AI) 특별 방역대책 기간(10월~2월)을 앞두고 가금농가와 관계 공무원 등 550여 명을 대상으로 '맞춤형 동물방역 역량 강화 교육'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교육은 대상자별로 26일 농업기술원에서 오리와 거위, 기러기 사육농가를 시작으로 한 달간 총 6회로 나눠 실시된다.

가금농가에겐 과거 발생 미흡 사례 등을 통해 본인 농장의 차단방역 실천 방안을 스스로 찾도록 교육할 예정이다. 공무원과 관련 종사자들은 사전 방역 조치와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 대응 능력을 배양시키고, 인체감염증 예방 교육도 함께 진행한다. 이영남 전남도 동물방역과장은 "가금농가에서는 겨울철이 오기 전에 방역시설을 보강하고, 기본 차단방역 수칙을 반드시 지키는 등 올 겨울을 미리 준비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전남도는 특별방역대책기간 이전에 가금농장 방역실태 점검과 보완, 방역시설 설치 지원 등을 통해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을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이재기 기자

광전매일신문
TEL. (062) 525-9775
FAX. (062) 528-4566